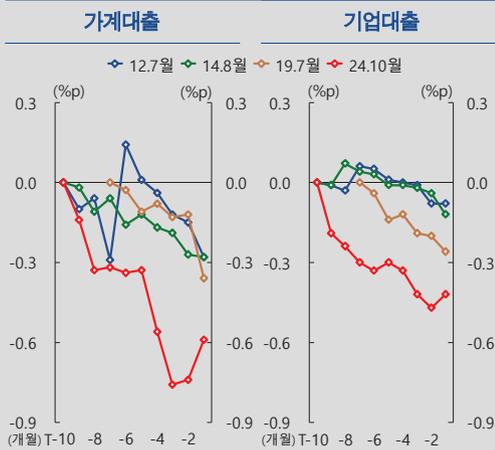




하락하였다. 금년 1~9월중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금리는 2차레 기준금리 인하폭을 상회하는 정도로 하락(각각 -59bp, -52bp)하였으며 수신금리도 상당폭 하락(-45bp)하였다. 특히 8월 이후 상대적으로 큰 폭 상승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금년 1~7월중 이미 66bp 하락하였다(참고 4-3).

참고 4-3. 기준금리 인하 이전 은행 대출금리 변동<sup>1)2)</sup>



주: 1) 기준금리 인하(T) 이전 9개월간 월별 대출금리 변동폭 누적 기준  
2) 2019년 7월은 2018년 11월 기준금리 조정(+0.25%포인트)을 고려하여 직전 6개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

이와 함께 은행들이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한 점도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요 은행들은 7월 하순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연간 경영목표치를 상회함에 따라 그간 대출경쟁 과정에서 크게 낮춰 왔던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산금리를 큰 폭 인상하였다. 또한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은행들이 수익성 및 규제비용 관리 등을 위해 저리대출 취급을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영업 강도를 조절하였다(참고 4-4).

참고 4-4. 주택담보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가산금리 추이



주: 1) 2013년 1월-2024년 10월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

수신금리의 경우,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폭이 제한되었다. 은행들은 금년 4/4분기 예수금 및 은행채 대규모 만기도래<sup>4)</sup>, 내년 초 LCR 규제비용 정상화<sup>5)</sup> 등으로 자금유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예금금리를 크게 낮추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금리 등을 인상한 상황에서 예금금리를 낮출 경우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점도 예금금리 조정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차주의 대출 이자부담 변화 평가

먼저, 신규 대출금리가 낮아진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실제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전에 이미 상당폭 하락

3) 금번 통화긴축 사이클에서 기준금리 인상폭(+3.00%포인트)이 크고 고점 지속 기간(21개월)도 길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과거에 비해 비교적 조기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4) 2022년 4/4분기 PF-ABCP시장 불안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파생상품 증거금 납입부담 증가 등으로 당시 은행들이 정기예금 등 자금유치를 크게 늘린 여파로 매년 4/4분기 예수금 등의 만기도래 규모가 큰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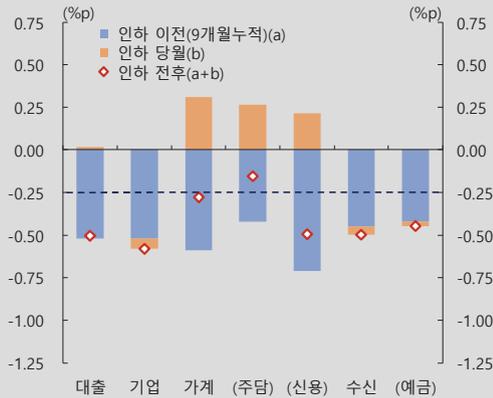
■ 예수금 만기도래 규모(조원): 2021년 4/4 334 → 2022년 4/4 442 → 2023년 4/4 544 → 2024년 2/4 442 → 3/4 432 → 4/4 549

■ 은행채 만기도래 규모(조원): 41 → 55 → 48 → 44 → 53 → 57

5)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완화됐던 LCR 규제비용을 내년 1월부터 정상화할 예정(기존 95% → 24.7월 97.5% → 25.1월 100%)이다.

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초 이후로 보면 대출금리 하락폭(-50bp)은 10월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1차례 추가 금리 인하까지 반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참고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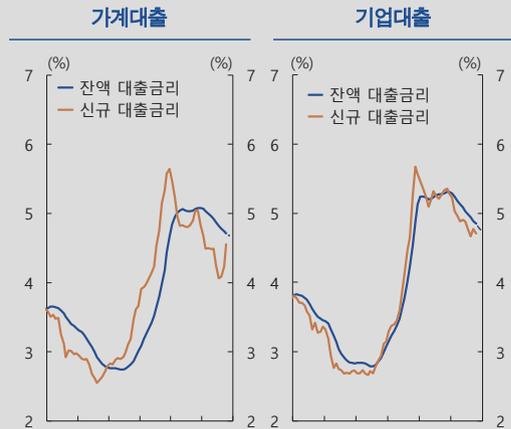
**참고 4-5. 10월 기준금리 인하 전후 은행 여수신금리<sup>1)</sup>**



주: 1) 인하 당월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 5주간 기준  
 자료: ECOS, 한국은행(주간 간이금리조사 기준)

기존 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가계 및 기업의 이자부담도 이미 상당폭 경감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추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차주의 이자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대출금리는 금년 1~10월중 가계대출(-37bp)과 기업대출(-46bp) 모두 상당폭 낮아졌으며, 향후 기존 대출의 금리갱신, 대환 등에 따라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말 대출금리 추정치<sup>2)</sup>를 활용하여 대출이자 변화를 추산해 보면, 연간 기준으로 가계대출 3.9조원, 기업대출 7.3조원 등 총 11.3조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러한 대출이자 경감효과는 내년에도 단기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참고 4-6).

**참고 4-6. 은행 가계 및 기업 대출금리 추이**



주: 1) 2024년말은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시산

**평가 및 시사점**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여수신금리 변동폭이 과거 기준금리 인하시에 비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대 선반영 효과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는 여수신금리에 대체로 원활히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인하 결정 이전에 상당 부분 나타나면서 차주의 자금조달 비용이나 이자상환부담도 이미 상당 수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은 대출 포트폴리오는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며, 기준금리 조정의 영향은 결정 시점보다는 그 이전에 시장에서 기대가 형성될 때부터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6) 2024년 9월말 기준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갱신주기별, 고정금리 대출의 잔존만기별 분포를 활용하여 3개월내 금리조정 대출규모를 추산한 뒤, 예상 금리조정 폭을 적용하여 연말 대출금리 수준을 추정하였다(가계대출 23년말 5.08% → 24년말 4.65%, 기업대출 5.31% → 4.75%).